

발명은 글로벌 시대를 여는 도전 정신입니다

역사속의 발명품

김벌리의 클리넥스 이야기

‘셀루코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계 제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유럽은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모두가 궁핍했다. 특히 매일 쏟아지다시피 하는 부상병들을 치료할 도구는 더욱 부족하였으며, 붕대, 솜, 가제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때 종이를 재료로 한 제품을 주로 만드는 김벌리 클락은 솜을 대신할 제품 개발에 나섰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셀루코튼’이다.

셀루코튼은 적은 양의 솜과 나무의 펄프 섬유소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솜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흡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전쟁이 한창이던 그 당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병원에서도 솜 대신에 이 셀루코튼을 사용하였고, 또 가스 마스크의 필터로도 이용될 만큼 셀루코튼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셀루코튼의 인기도 한풀 꺾이고 말았다.

김벌리는 이 발명품을 없애지 않기 위해 변신을 꾀하였다. 셀루코튼을 종이와 같이 얇게 제작하여 얼굴 화장을 고치는 휴대용 천으로 탈바꿈시켰던 것이다. 의료용 솜과 얼굴 화장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관계였다. 이 변신은 일단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얼굴 화장을 지우기 위해 값비싼 돈을 들일 필요 없이 모두들 천으로 만든 손수건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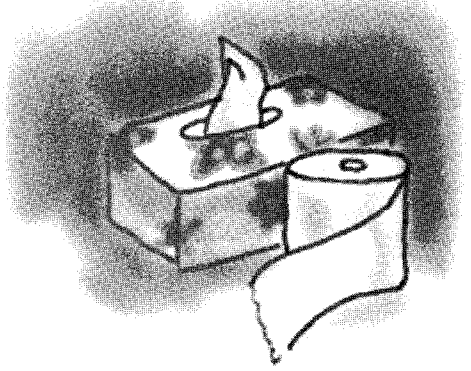
김벌리는 제품을 팔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냈다. 인기 있는 영화배우들을 기용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기도 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장씩 연속적으로 뽑아지도록 고안된 상자티슈도 이 때 개발되었고, 클리넥스라는 고유의 상표가 시작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이런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벌리는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화장전용 티슈를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김벌리의 티슈 개발팀이 이 사실을 알아챈 것은 일리노이즈 지방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 지방 대부분의 사람이 손수건으로 화장을 지우고, 이에 대해 불만이나 불편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부터 개발팀은 확고한 시각에서 벗어나, 티슈에 새로운 용도를 붙여넣었다. 감기로 시달리는 이들이 손수건을 코를 훔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광경을 목격한 개발팀은 클리넥스의 새로운 광고 문안을 만들었다.

‘당신 주머니에 감기를 넣고 다니지 마세요.’ 새로운 광고가 나가자마자 클리넥스 판매고는 두 배로 쉰 댕 뛰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 속의 손수건을 던져버리고, 대신 클리넥스를 찾았던 것이다.

전쟁 중 솜의 대용품으로 태어나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클리넥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그 성공의 비결이다.



발명아이디어

실내용 전자 화분

식물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전자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조절함으로 초목이 고사하거나 습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실내에서도 잘 재배되는 실내용 전자 화분은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장점이 있다.

사업성

- 대형 연회장 및 공항, 은행, 관공서, 교회, 사무실, 가정에 이르기까지 화분(식물이나 꽃)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 없으므로 시장성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화분 외에도 화분으로 부가되는 사업인 농업, 제조업, 의학, 환경, 인테리어, 조경, 조명, 관광산업 등 많은 부가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 실내에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전자화로를 이용한 화분이므로 전자산업 부분도 발전할 수 있다.

응용분야

농업, 제조업, 의학, 환경, 전자, 인테리어, 조경, 조명, 관광산업 등.

발명가 : 심학보
출원번호 : 19980027050
등록번호 : 특허 272192호

특허 Q&A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이전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출원중인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은 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권의 이전등록이란, 특허권의 등록권리가 기존의 권리 주체를 떠나 새로운 권리 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의 이전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상속,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상속과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등록)권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현재 출원중인 건에 대해서는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서식은 특허청 사이버민원 ☎ 온라인민원신청 ☎ 민원서식 참조).

구비서류

- 특허(등록)권 이전등록 신청서 1부: 공유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기재하시고 신청서상에 등록원일자는 양도일자를 기재하십시오. 단 일부 이전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증 1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양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십시오. 단,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 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도증에는 정부수입인지(3,000원)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공유자 전원):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 1부를 제출.
- 양도인 인감(공유자 전원)
-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락이 필요한 경우 이의 증명서류 1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특허권의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원부와 신청서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신청시 유의사항

- 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 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한 후 동 등록필확인서 및 등록필통지서를 신청서에 첨부.
- 상표는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사한 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함.
- 업무 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음.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단체 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음.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음.
-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됨.
- 하나의 상표권을 2인 이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음.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등록과 권리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고객 콜센터(Tel. 1544-8080)로 문의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함께 풀어봅시다!

여름철에 검은 옷을 입는 이유는?

검은색은 빛을 잘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잘 반사한다. 그래서 여름에는 흰색 옷을, 겨울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막에 사는 베두인 족은 사시사철 폭풍 쨍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검은 천으로 짠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닌다.

베두인 족이 이렇게 옷을 입는 이유는?

1. 모래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2. 땀을 되도록 많이 흘려 몸 속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3. 시나이 사막에선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4. 땀을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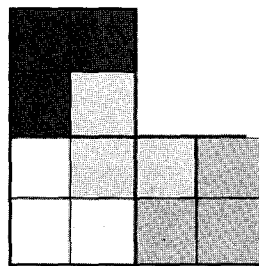
해답은 다음 호에...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풀이를 기다립니다. 20일까지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보내주세요(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2-538-2710 / 보내실 곳: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 앞(우편번호 135-980) / e-mail: kwia@inventor.or.kr

[지난 호 문제] 도형 4등분 하기

[해답] 옆의 그림과 같이 나누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충북 충주시 연수동 주공 APT 303-303 지복희 님
위의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